

# 다른 세계관의 사이에서

## - 산인지방의 점 집회의 사례를 통해 -

마에타 사키 (고베대학)

### 1. 머리말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피할 수 없다. 자신과 가족의 병이나 죽음, 빈곤, 대학입시, 독신으로 있는 것 등에 대한 불안은 일상생활에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한 과학적·합리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 사람들은 진지한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종종 점에 의지한다. 점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초자연적인 설명을 듣고 앞으로의 행동지침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되찾아간다.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 전쟁과 그에 따른 경제 악화 등의 사회 불안이 커지는 현재 점에 대한 니즈는 커지고 있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동아시아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일 것이다.

현대 일본의 지방사회에 존재하는 점 중의 하나에 주목한 본 연구는 사람들이 점을 통해 여러 세계관을 접하는 가운데 사회나 자신의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 이해 방법을 바꾸어가는 과정에 접근한다.

일반적으로 이 점을 믿는 과정은 회심·입신·각성과 같은 일시적·극적인 계기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그로 인해 세뇌나 사기라는 이미지가 불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중에서도 점은 사람들의 상황 인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일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하마모토(1983)는 복점의 특징으로 우연성에 주목하며, 그 우연성에 의해 문제를 파악하는 세계관을 바꾸어 사람들의 상황 이해 가능성이 넓어짐으로써 점이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특히, 이 상황 인식의 변화는 점쟁이나 상담자가 일대일로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행해지는 것에 주목받아 왔다(하마모토 1993, 이시이 2005). 이들 연구에서도 점의 일시적·극적인 프로세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점 집회에서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 번의 점만으로 상황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점 집회에서 참가자가 어떻게 상황 인식의 틀을 변화시킬지에 주목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 인식의 틀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관’이라는 말로 나타내기로 한다.

### 2. 점집회

조사를 실시한 산인 지방은 도심지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이센 신양<sup>1)</sup>이나 양묘제<sup>2)</sup> 등 특유의 민속종교적인 세계관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기도나 민간요법이 이루어져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산인 지방에서도 학교 교육이나 미디어에 의한 정보망이 일찍이 구축되어 과학적·합리적인 사고는 이미 침투해 있다. 현대의 그러한 상황 하에서, 점의 새로운 형태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의 형식을 취하는 것

1) 돗토리현 서부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1729m의 독립봉. 고대 신화에도 등장한다.

2) 시신을 묻는 무덤과 공양을 지내는 무덤을 따로 마련하는 풍습.

이다.

산인 지방의 한 가정에서는 여러 여성들이 모여 점쟁이를 초청해 점이나 점쟁이의 이야기를 즐기는 집회가 몇 달에 한 번꼴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점 집회는 영양보조식품 구입·판매와 관련된 여성 10명이 모여 점쟁이 켈마텍(가명) 씨를 집으로 초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 집회는 켈마텍 씨와 참가자 개인이 일대일로 점을 치는 ‘개인 세션’, 그의 이야기를 참가자 전원이 듣는 워크숍인 ‘워크’로 구성된다.

‘개인 세션’에서는 동전의 결과 속이 나오는 방식을 음양으로 변환해 ‘역경(易經)<sup>3)</sup>’과 대조하여 결과를 얻는 ‘육효점술’이라는 방법이 이용된다. 켈마텍 씨는 상담 내용을 듣자, 먼저 상담자에게 동전 3개를 6번 흔들게 한다. 그리고 켈마텍 씨는 동전 뒷면의 개수를 세어 그 수가 홀수라면 양, 짝수라면 음으로 치환하여, 그 음양 6개의 조합을 『역경』에서의 64 괘에 대응시킨다. 그리고 그의 독자적인 『역경』의 해석을 통해 상담자가 처한 상황의 해설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한다. 개선책은 특정 색·동물의 장식물이나 일러스트를 장식하는 형태가 많고, 이대로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 효과를 실감하는 사람도 많다.

인원수 형편상 1인당 15분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켈마텍 씨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일방적으로 빠른 속도로 점의 결과를 설명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끝이 난다. 즉, 거기서는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프로세스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다.

한편, ‘워크’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상석에 켈마텍씨를 두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친근한 화두로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워크’는 켈마텍 씨도 참가자도 매우 즐거워하며, 그도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참가자도 그에게 질문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듣는다.

### 3. 워크

이러한 점 집회의 특징을 근거로 삼아, 본 연구에서는 ‘개인 세션’이라고 하는 점의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워크’가 굳이 설치되고 중요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워크’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통해서 밝힌다.

#### 3.1 워크에 있어서의 지식

우선, 켈마텍 씨가 ‘워크’ 중에서 어떠한 지식을 사용하는지에 주목하겠다. 그가 실제로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적인 지식, 민속 종교적인 지식, 픽션 지식이 담겨 있다. 켈마텍 씨는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힘든 난해한 학술용어를 구체적인 예를 섞어 설명하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데 이용한다. 그리고 그 학술 용어를 사용해 저주나 신화 같은 민속 종교적인 사건, 만화나 영화 같은 픽션 작품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확산에 따라 돌아다니는 다양한 정보와 그 악영향에 대해 ‘정보생명체/뮴4)’과 같은 말을 들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한 다음, 도야마현에서 일어난 쥘

3) 천문·지리·인사·물상을 음양 변화의 원리에 따라 설명한 책으로 원래 점을 치는 데 사용되었다. 오경 가운데 하나로, 유교에서 중시되고 있는 경전에 속하며, 주역이라고도 한다.

4) ‘뮴’은 ‘도킨스(1976)가 제창한 문화의 전승이나 모방에 관한 유전자와 비슷한 개념. 모방을 뜻하는 *mimeme*(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문화는 유전자의 복제처럼 다른 사람에게 모방되고 돌연변이처럼 새로 생기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문화는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가므로 유전자에 빗대어 뮴이라고

인형<sup>5)</sup>의 사례나 동남아시아의 금기 사례를 들어 이야기한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지브리 영화로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작품도 언급한다. 그는 과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민속 종교적인 사건이나 픽션 작품부터 설명하고, 그것을 보충하는 데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는 ‘워크’의 장에서 과학, 민속 종교, 픽션이라고 하는 여러 세계관을 조합해 설명하고 있다. 세대, 종교, 교육 등의 배경이 다른 각각의 참가자들에게, 과학적인 이야기, 민속 종교적인 이야기, 픽션 이야기의 어느 세계관이 익숙한지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켈마텍 씨의 이야기 속에서 평소 생소했던 사고방식까지 접하며 그 모든 것이 무의식의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가운데, 서로 다른 세계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 3.2 ‘워크’에 있어서의 참가자의 관여

다음으로 참가자들이 ‘워크’에 대해 어떤 관여를 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개인 세션’이 일부 희망자만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워크’에는 ‘개인 세션’을 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해 그 자리에 있는 전원이 참가한다. 그래서 참가자의 관여 정도에도 편차가 있다. 켈마텍 씨의 지식이나 생각을 습득하려고 열심히 참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점이나 점쟁이에게는 의심을 품고 있어 어디까지나 참고 정도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다. ‘워크’의 장에서는 이처럼 관여 정도가 서로 다른 참가자들이 무언가를 강요받지 않고 같은 자리를 공유하고, 그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관여 정도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곳에서는 즐거워하는 다른 참가자에게 영향을 받아 자신도 즐겁게 느끼고, 그 모습이 또 다른 참가자에게 더욱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한 참석자는 집회에 참석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점이나 점쟁이를 별로 믿지 않았지만, 즐거워하는 다른 참가자를 부인하지 못해 ‘워크’만 한다는 생각으로 매번 참가했다. 그러다 그녀에게 환경의 변화와 고민이 생기면서 ‘개인 세션’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이 집회와 점에 몰입하게 되었다. 한편, 주최자의 한 명인 여성도 자신은 켈마텍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즐겁게 배우는 참가자 덕분에 집회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참가자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서서히 관여 정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 4. 결론·고찰

이상의 ‘워크’의 장에 있어서의 지식의 이용 방식과 참가자의 관여 정도의 분석을 통해 ‘워크’의 장은 다양한 세계관의 지식을 연결하고 참가자의 상호 행위를 일으킴으로써 ‘개인 세션’만으로는 불충분했던 다른 세계관의 수용, 그리고 이행을 보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워크’의 장은 고프만이 말하는 ‘초점이 정해진 모임’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특징인 참가자 개인의 태도나 감정의 다양성이 허용되는 완만한 세계가 실현되고 있다(고프만 1985:32). 그러한 완만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세계관의 지식이나 태도를 가진 참가자가 공유하고, 그곳에서의 상호 행위의 축적을 통해서 참가자의 태도는 점이나 점쟁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점차 이행한다. 즉, 이 ‘워크’의 장에서는 세계관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차적

표현했다’(이시카와 외 편 2010:1252)라고 되어 있으며, 진화생물학·동물행동학·생물학 분야에서 최초로 반출된 개념이다.

5) 짚으로 만든 인형. 신앙이나 저주적인 것에 이용되며, ‘새벽 2시경에 몰래 신사((神社))에 참배하여 자기가 저주하는 사람의 제웅을 신목((神木))에 못으로 박아 놓는 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종교 현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만하게 신앙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가리키는 '해석적 표류'(도사 1997)라는 루아만이 제창한 개념과 유사하다. 신종교운동에서 신자들은 천천히 거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일을 해석하는 방식을 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만하고 미묘한 이행이 '해석적 표류'이다. '해석적 표류'는 '경험의 축적과 지적 습관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변화해 가는 반무의식적 흐름'이며, 그중에서 '신앙은 회의에 대한 면역을 갖춘 것'(도사 1997:200-201)이 된다.

점을 믿는 프로세스는 점쟁이와 의뢰인이 일대일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심이나 세뇌 같은 극적인 변화로 포착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점의 장소와는 다른 '워크'의 장에서는 세계관의 이행의 과정이 다르다. '워크'에 의해 세계관의 지식이나 관여 정도가 서로 다른 참가자가 공존하고 섞여 축적해 나감으로써 참가자의 세계관의 점진적인 이행, 즉 '해석적 표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 5. 맺음말

이와 같이 이 사례를 통해서도 다양한 지식이나 참가자가 공유, 축적되는 점진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의 이해와 수용, 이행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인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점의 한 사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상황을 인식하는 틀을 취하는 과정 중의 하나를 제시할 수 있었다.

'워크' 중에서는 단순히 점을 믿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민속 종교적 지식에서 과학적 지식으로 이행하거나 '워크'에 참가 중에도 몰입하지 않은 상태로 이행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세계관 사이의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적인 이행 가능성, 관계성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세계관의 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이 점에 관해 더욱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에는 대상을 일본 밖으로도 넓혀 사람들이 점을 통해 어떻게 세계나 자신의 주변 상황을 이해해 나가는, 이해의 방법을 바꾸어 가는지에 대해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가고 싶다.

## 참고문헌

- 石井美保(2005) 「もの/語りとしての運命ーガーナのト占アファにおける呪術的世界の構成」 『文化人類學』 70(1),21-46. 日本文化人類學會.
- E.ゴフマン(1985) 『出會い 相互行爲の社會學』 佐藤毅・折橋徹彦譯. 誠信書房.
- 土佐昌樹(1997) 「呪術の現代性ー呪術論に見る現代西洋の他者表象ー」 『岩波講座文化人類學』 183-208. 岩波書店
- 野澤豊一(2010) 「對面相互行爲を通じたトランスダンスの出現ー米國黑人ペンテコステ派教會の事例からー」 『文化人類學』 75(3),417-439. 日本文化人類學會.
- 浜本満(1983) 「ト占(divination)と解釋」 『儀禮と象徵ー文化人類學的考察』 九州大學出版會.
- 浜本満(1993) 「ドゥルマの占いにおける説明のモード」 『民族學研究』 58(1),1-28. 日本文化人類學會.
- 石川・黒岩・塩見・松本・守・八杉・山本編(2010) 『生物學辭典』 東京化學同人

(번역책임자:김예진)